은행주에 우호적인 요인들 다수 발생. 은행주 관심 높여야

은행 Weekly | 2026.1.26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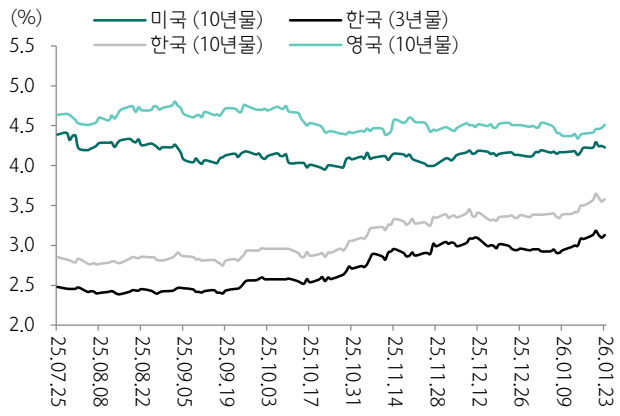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LTV에 관한 정보를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4대 시중은행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관력 매출액은 각 은행이 담보대출로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6.8조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음
-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며 은행권의 대출여력은 약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대출에는 80%, 개인사업자대출에는 95%의 가중치가 적용
- KOSPI 날자 투자중개 사업도 훨훨. 인터넷은행 수익다각화 활로. 카카오뱅크의 목표전환형 펀드가 출시 45일만에 목표수익률 6% 달성. 토스뱅크도 수익다각화를 위해 플랫폼 경쟁력 활용 중. 목돈굴리기 서비스 통해 2천여개의 금융 투자상품을 소개
- 정치권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발의된 의원안 통합을 위한 논의 진행. 지난해 6월과 달리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는 실제 도입이 이뤄질 전망. 한편 해시드 오픈 파이낸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특화 블록체인 '마루' 출시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1월 23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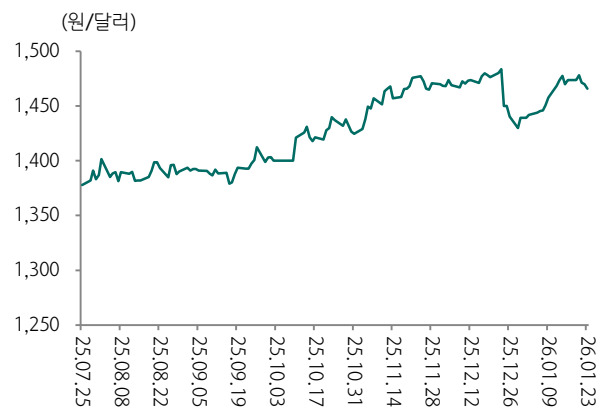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Weekly Net Buy (십억원)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87	33.2	5.6		4,125,555.1	3.1	21.5	26.6	108.0	-31.8	-825.0	1,008.1	-1,963.8
은행	0.65	7.52	8.81	0.62	182,147.0	4.6	5.1	15.1	69.5	14.2	-29.8	294.9	-255.1
KB 금융	0.82	8.79	9.48	0.73	51,726.3	3.6	7.5	19.2	63.6	1.2	-15.2	35.6	-35.3
신한지주	0.70	8.83	8.82	0.64	40,733.0	5.9	7.8	14.3	76.1	29.1	-18.1	102.7	-82.7
우리금융	0.61	6.78	9.15	0.57	21,692.0	5.9	3.7	15.9	92.3	2.7	4.6	66.7	-66.1
하나금융	0.64	6.97	9.13	0.62	28,138.7	4.9	6.5	14.9	78.0	1.2	7.4	41.9	-42.9
기업은행	0.48	6.19	7.81	0.56	16,785.8	2.7	-0.7	8.4	46.9	-13.0	-3.7	27.1	-14.3
BNK 금융	0.46	6.16	7.50	0.52	4,934.2	6.4	-1.9	12.4	53.8	0.8	-0.2	16.0	-16.9
iM 금융	0.37	5.27	7.18	0.44	2,313.0	2.1	-8.6	6.3	76.0	-4.0	-4.3	1.5	2.1
JB 금융	0.76	6.56	12.05	1.02	4,614.2	1.5	-7.6	9.7	49.3	-3.7	-0.2	3.3	1.0
카카오뱅크	1.64	23.69	7.07	0.72	11,209.8	10.1	6.3	2.6	11.6	-0.2	-4.6	27.0	-29.8
삼성카드	0.73	10.09	7.36	2.07	6,395.4	4.5	-2.1	11.7	39.9	-1.8	-1.5	3.3	-1.7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4.6% 상승해 KOSPI 상승률 3.1%를 소폭이지만 오랜만에 초과상승. 1월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인식 등으로 국채금리가 큰폭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외국인들도 은행주를 3,000억원 가까이 대거 순매수하는 등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 공정위에서 은행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불확실성을 완화.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것은 다소 아쉬운 요인이지만 한때 언론에서 거론되었던 조단위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비해서는 금액이 우려보다 크지 않은 수준이었기 때문.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보합세를 기록.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로 상승했던 국채금리가 그린란드 병합 문제와 관련해 무력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누그러지자 다시 하락. 결국 지난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는 각각 4.23%와 3.60%로 전전주말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음. 반면 국내 국채금리는 금통위 여파에 따른 상승세가 이어짐. 국내 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0.3%로 나오자 주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 국내 10년물 국채금리는 3.59%로 한주간 10bp 추가 상승했고, 3년물은 3.14%로 6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고점 인식이 높아지면서 하락 전환. 은행들도 외화예금 운용 기조를 빠르게 바꾸며 환율 방어에 동참하는 모습. 결국 1,462.5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11.4원 하락. 지난주 국내 기관은 KOSPI를 320억원 순매도한 반면 은행주는 14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은 KOSPI를 1.0조원 순매수하는 가운데 은행주를 3,000억원 가량이나 순매수해 은행주 순매도 강도가 대폭 강화되는 흐름. 은행 중에서는 외국인이 신한지주를 1,000억원 이상 순매수한 점이 인상적인 모습이었음
- 전주 특징주는 카카오뱅크. 주가가 10.1% 상승해 한주동안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 다날, 헥토파이낸셜 등 원화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법제화 기대감 속에서 대폭 급등했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도 가상자산 관련주로 묶여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카카오뱅크도 금요일에만 주가가 9.8% 상승. 그 외 BNK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 등이 약 6% 내외 주가가 상승하면서 타행보다 주가 상승 폭이 컸음.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BNK금융과 신한지주, 우리금융을 각각 160억원과 1,030억원, 670억원 순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들 주가 상승에 일조하는 모습이었음
- 공정위는 4대 은행에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은행별로는 KB금융 697억원, 신한지주 638억원, 하나금융 869억원, 우리금융 515억원임. 과징금 부과의 이유는 LTV 상향 조정으로 차주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려웠을 수 있었던 점(거래은행 선택권 제한)과 은행들이 영업경쟁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대출금 회수 비용을 최소화한 점(경쟁제한 효과) 때문으로 추정됨. 아무튼 은행들은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 금번 과징금 부과에 따른 CET 1 비율 하락 폭은 KB금융과 신한지주 각각 -3bp, 우리금융 -4bp, 하나금융 -5bp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는 손익 영향과 운영 RWA 증가 폭(과징금의 600%)을 모두 감안한 수치. 운영 RWA의 경우 감독당국이 과징금 최종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금번에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 다만 은행들이 공정위 부과 과징금 금액을 전부 손익에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판단에 따라 과징금 중 일부만 반영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실제로는 과징금에 따른 CET 1 비율 하락 폭이 우리 예상치보다 소폭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 LTV 담합 의혹 과징금이 실제로 부과된 점은 분명 안타까운 요인이지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불확실성 완화 요인으로 해석 가능. 만약 향후 예정된 홍콩 ELS 제재심에서 ELS 과징금마저 윤곽이 드러난다면 수개월간 은행주 주가를 짓눌렀던 과징금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
- 1) 시중금리 상승은 타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은행주에 포지티브 요인이고, 2) 원/달러 환율도 최소한 고점 인식이 커진 만큼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3) 과징금 불확실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4) 상법개정안 조만간 처리 예정, 5) 여기에 외국인의 은행주 매수세 또한 강하게 확대되고 있는 등 은행주에 우호적인 요인들 다수 발생. 1월 30일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4분기 실적도 우려보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점차 높여야 한다고 판단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178,000원), 하나금융(매수/TP 1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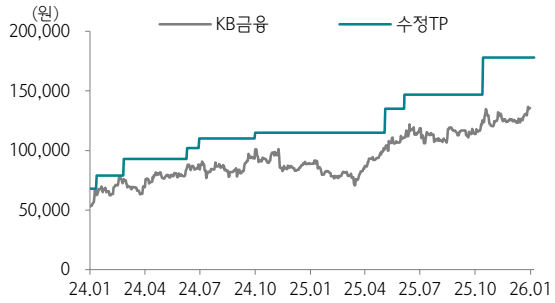
- KB금융은 4분기에도 강력한 경상 펀더멘털 확인 예상. 홍콩 ELS 및 은행 LTV 담합 의혹 과징금 우려는 완화 가능성이 높고, 과징금 우려만 해소될 경우 투자심리 큰폭 개선 예상. 외국인 매도 둔화된데다 최근에는 유입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하나금융은 3분기 CET 1 비율 하락으로 경쟁사와의 비율 차이가 확대되었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 그러나 환율 하락 전환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 외국인 순매수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Global Peer Table (2026년 1월 23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2025~)
KOSPI	1.87	33.2	5.6		4,125,555.1	3.1	21.5	26.6	108.0
은행	0.65	7.5	8.8	0.62	182,147.0	4.6	5.1	15.1	69.5
KB금융	0.82	8.8	9.5	0.73	51,726.3	3.6	7.5	19.2	63.6
신한지주	0.70	8.8	8.8	0.64	40,733.0	5.9	7.8	14.3	76.1
우리금융	0.61	6.8	9.1	0.57	21,692.0	5.9	3.7	15.9	92.3
하나금융	0.64	7.0	9.1	0.62	28,138.7	4.9	6.5	14.9	78.0
기업은행	0.48	6.2	7.8	0.56	16,785.8	2.7	-0.7	8.4	46.9
BNK금융	0.46	6.2	7.5	0.52	4,934.2	6.4	-1.9	12.4	53.8
iM금융	0.37	5.3	7.2	0.44	2,313.0	2.1	-8.6	6.3	76.0
JB금융	0.76	6.6	12.1	1.02	4,614.2	1.5	-7.6	9.7	49.3
카카오뱅크	1.64	23.7	7.1	0.72	11,209.8	10.1	6.3	2.6	11.6
삼성카드	0.73	10.1	7.4	2.07	6,395.4	4.5	-2.1	11.7	39.9
미국									
S&P 500	5.36	26.0	18.9	4.67	61,396.4	-0.4	0.6	3.5	14.0
은행	1.51	12.5	12.0	1.05	2,094.6	-0.6	-3.9	8.4	9.6
Wells Fargo	1.65	13.9	12.3	1.06	273.0	-1.0	-6.6	5.5	5.6
JPM	2.35	14.7	16.6	1.30	802.7	-1.8	-5.6	3.7	4.3
CITI	1.04	15.1	7.2	0.57	203.2	-1.5	-2.1	20.8	35.9
BOA	1.35	13.6	10.5	0.89	377.7	-0.3	-6.1	3.2	5.5
US Bancorp	1.50	12.1	12.7	1.09	86.2	4.1	3.4	19.9	18.5
PNC	1.59	13.6	12.2	1.15	86.0	4.0	5.1	23.5	16.1
BB&T	1.05	12.5	8.6	0.98	63.4	0.0	-0.5	16.7	6.7
중국									
상해A주지수	1.51	15.8	9.7	1.43	65,481.7	0.8	5.6	6.0	31.4
은행	0.68	7.1	9.6	0.72	11,492.3	-4.0	-8.1	-7.6	-6.7
공상은행	0.66	7.2	9.3	0.72	2,420.6	-5.3	-9.0	-6.4	-1.0
건설은행	0.66	6.7	9.9	0.80	1,817.1	-3.4	-6.2	-5.7	-3.9
농업은행	0.85	8.7	9.8	0.64	2,300.9	-6.4	-11.9	-14.2	21.8
중국은행	0.64	7.2	9.0	0.66	1,590.4	-2.4	-7.5	-2.2	-8.8
교통은행	0.51	6.1	8.3	0.62	557.8	-3.3	-8.8	-5.8	-15.8
초상은행	0.83	6.4	13.0	1.19	963.8	-3.2	-8.2	-8.9	-17.8
일본									
NIKKEI	2.58	21.7	11.5	3.81	918,782.1	-0.2	6.9	10.8	41.8
은행	1.33	16.2	8.1	0.39	113,138.2	-2.2	12.5	31.6	70.5
Mitsubishi UHF	1.51	14.8	10.6	0.59	33,650.9	-5.2	12.7	25.4	62.4
Sumitomo Mitsui Financial	1.37	13.6	10.5	0.61	21,373.9	-1.5	8.0	37.2	57.7
Mizuho	1.49	14.3	11.2	0.44	16,759.2	-1.7	16.7	38.3	87.0
Sumitomo Mitsui Trust	1.08	11.9	9.3	0.40	3,559.4	-2.0	5.9	21.8	41.1
유럽									
MSCI Europe	2.36	17.3	12.7	1.57	14,800.7	-1.0	3.7	6.4	16.8
은행	1.47	11.6	12.6	0.66	1,918.1	0.1	5.0	22.6	61.6
HSBC	1.68	11.8	12.8	0.77	211.4	0.6	6.6	26.4	53.3
Santander	1.54	11.7	13.2	0.76	153.9	0.9	7.0	28.4	118.7
BNP Paribas	0.83	8.6	9.7	0.41	98.4	1.1	10.1	29.2	47.7
Credit Agricole	0.74	8.2	9.4	0.26	52.8	-0.8	-0.4	7.0	22.2
Deutsche	0.97	10.8	9.0	0.47	63.1	-0.4	1.4	16.8	72.9
Unicredit	1.70	11.0	16.6	1.24	111.8	0.2	3.8	20.4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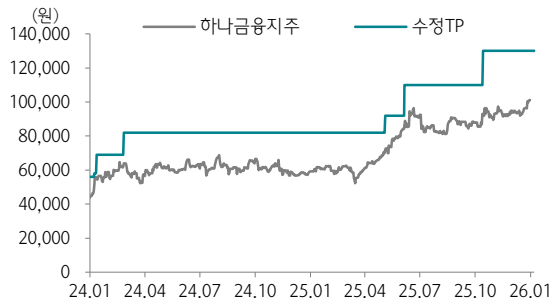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78,000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24.7.4	BUY	102,000	-15.97%	-13.43%
24.3.21	BUY	93,000	-19.26%	-9.25%
24.2.5	BUY	79,000	-12.89%	-0.51%
23.9.11	BUY	68,000	-20.92%	-2.50%

하나금융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7	BUY	130,000		
25.6.30	BUY	110,000	-20.85%	-12.27%
25.5.29	BUY	92,000	-14.77%	-8.48%
24.3.21	BUY	82,000	-25.94%	-16.10%
24.2.5	BUY	69,000	-15.85%	-6.38%
24.2.1	BUY	58,000	-3.62%	-3.62%
23.4.5	BUY	56,000	-26.55%	-14.6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1월 2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5.79%	4.21%	0.00%	100%

* 기준일: 2026년 1월 23일